

# 고은 불교대하소설

## 삼계 허위허위

**길**을 잃었다. 그것이 미혹인가. 바람이 분다. 바람이 나 자신 이던가. 아아 삼계(三界)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일컫는다. 지나가는 길손이 길을 잃고 삼계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길가에서 놀이에 정신이 팔려있던 어린 아이들은 "원 밭사람 다 보셨네. 삼계가 어찌지 어디란 말이야?"라고 산발기 같은 또렷또렷한 판자를 짚지 모른다. 그래도 미혹은 마한가지였다. 그렇기도 하겠다. 삼계란 어디 범공에

이든 당나라 반산에 머물고 있던 마조도일(馬祖道一)의 발을 이어받은 보체의 말이거나 한 사람의 입에서 세계가 토해지는 벽간 광경이기도 하다. 가없는 중생 어디서 왔는가. 가없는 중생 어디로 가는가. 이 생사에 유전하는 일을 조금도 피할 수 없는 미혹의 중생세계를 일러 유정(有情) 유루(有漏)의 세계라 하거나 여기서 나고 죽고를 끝없이 되풀이하는 생존을 이어감으로써 이것이 한 작은 세계(小世界)를 이루는데 우선 그 작은 세계는 세 가지로 구분됨으로써

허 있음을 입사리 알아낼 수 있겠는가. 옛 신령스러운 무당들이 저 북극의 편원에서 어느 것을 하늘이다. 어느 것을 땅이라고 차별하지 않는 신들의 허염없는 놀이를 이어받아 덩더쿵 북채치고 칼을 들어 춤을 추는 밤낮이아말로 이를 이전의 세계 그대로가 아니던가. 그 세계의 여러 현상들을 갖춘 나머지 그것 하나하나를 더하고 감하고 곱하고 나누어서 중생계로서의 삼계를 이루려면 욕계가 가장 진한 물질으로 칠해진 욕망의 세계였던 것이다. 색계란 물질의 세계이며 여성이 따로 없고 그러므로 태생(胎生)이 아닌 화생(化生)으로 나고 죽는 세계이다. 무색계란 색이 아닌 법체(法體)를 말하는데 물질이나 형상이 없는 허공계이며

이 하늘사람들은 모두 욕락이 있으므로 욕천인데 그 첫머리가 사천왕(四天王)의 하늘이다. 거기에는 동쪽 자국천 남쪽 증장천 서쪽 광목천 북쪽의 다문천에 각각 그곳을 주재하는 네 왕과 그에 딸린 천인무리들이 있다. 이것이 욕계 제1천이다. 그 다음 욕계 제2천이 도리천이다. 흔히 33천이라는 세계이다. 제3천이 아마천인데 때를 따라 쾌락을 누리는 곳이다. 제4천 도솔천은 그곳에서 태어난 천인들이 받는 다섯가지 욕락에 지극히 흡족해 하는 마음을 내는 곳이다. 제5천 화락천은 다섯가지 욕락의 경계를 스스로 변화시켜 즐기는 곳이다. 제6천 타화자재천은 다섯가지 욕락의 경계를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 6천 가운데서 4왕천은 수미산 허리에 있고 도리천은 수미산 꼭대기에 있으며 아마천 이상은 허공 가운데 있다. 그래서 각각 지거천(地居天)과 공거천(空居天)으로 불리운다. 그런데 그 6천의 세계가 다른 바는 우선 4왕천은 인간의 욕락이나 색욕과 같고 아마천은 서로 깨닫거나 해도 음악의 절정을 누리게 된다. 도솔천은 순간 잡아도 그것이 색정의 으뜸이다. 화락천은 서로 눈웃음만 쳐도 음악이 고조되어 그런 나머지 아이를 배는 것이다. 타화자재천은 남녀가 서로 바라



## 삼계의 구분이란 또 무엇인가 태고에 누가 세계를 조각내어 금긋고 울 치어 차별경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로 된다. 여기서 말하는 삼계(三界)의 계(界)란 가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삼계가 각각 자기 스스로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저 스스로의 종족을 뜻하기도 함으로써 저 스스로의 범위를 가지는 것이다. 한 마더로 이 세계는 어디나 그런 기(氣)의 세계일 따름이다. 욕계는 탐욕 소속의 계이다. 색계는 탐욕을 벗어나 물질 소속의 계이다. 무색계는 물질마저 완전히 벗어난 무색소속의 계이다. 그러나 이런 구분이란 또 무엇인가. 저 태고적의 그 누가 이런 따위 구분으로 세계를 조각내어 금 긋고 울 치고 그래서 차별의 경계만을 지어냈던 말인가.

그곳에 머무는 생명들도 오직 수상영사(受想行識)의 사온(四蘊)으로 이루어져서 허공 그 자체와 다를 바 없다. 이런 것을 예로부터 '벽탁(碧落)'이라 하였다. 자 저 사바세계 삼부주의 한 구석인 조산반도 무독도랑에서 한동안 몸을 의탁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말한 욕계의 어디와 심지어 색계의 어디에 각각의 행각을 이어나가고 있음에 틀림없다. 장차 그들 하나하나를 논여겨 볼 때에 이거니와 먼저 욕계의 여러 곳을 더듬어 가기로 한다. 욕계는 지옥으로부터 제6욕천에 이르는 사이의 모든 유정세계와 기세계(器世界)를 일컫는데 다른 시대와 다른 문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재로 그 세계 안에 아우르고 있는 것이 다른 점으로 되고 있다. 세계란 인간의 업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 업에 의해 지탱되며 그 업에 의해 소멸되기 때문이다. 작한 나머지 그 나선형의 선회의 축이 수륜이 태어났다. 이 물의 세계 역시 어떤 창세(創世)의 그것에 견줄 수 없는 잠입함을 불러 일으켰다.



123

그런 심장생(十長生)의 그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되고 서 있는 그곳으로부터 시작된다. 삼계 곧 세계 전체이다. 세계의 세(世)는 시간이고 계(界) 혹은 간(間)은 공간을 뜻한다. 그래서 이 세계는 본체 만성이 백백하게 차 있으나 어느 곳 하나 어지러운 것이 없는 질서의 세계이다. 세는 흐름이다. 옮겨감이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三世)에 걸쳐 흐르고 흐르는 것이다. 또한 세는 무너짐이다. 일체의 현상은 네가지 모양(四相-生住異滅) 때문에 흐르고 옮겨가거나 일어나거나 무너진다는 뜻이 된다.

한 때어난 젊은이가 선인들이 남긴 옛책의 단 한 마디도 빌어다 쓰지 않고 내가 보는 바에 믿겨보노라니 이 우주 안의 만남은 지나고 이 우주안의 헤어짐은 애착없이 버리면 그만인 아닌가. 미혹의 세계, 생사유전의 세계 아니 종잡을 수 없는 세계 어디에도 금 하나 낀 것 없이 그대로 섬김으로써 그 세계의 기가 끝나 하나의 기와 떨어지면 그것으로 죽어간다. 하지만 세상이란 어느새 금 그어 이곳과 저곳이 있고 울 안과 울 밖이 있게 되어 그것으로 시절(時節)과 경계가 생기니 욕계의 욕망을 품고도 색계 무색계를 꿈꿀 수 있었을 것이다. 예속 재욕 색욕은 그렇거니와 당장 식욕과 수욕(睡慾) 그리고 명욕에 사로잡힌 암컷 수컷이 함께 머무르는 욕계란 정녕 미혹 중의 미혹의 세계가 아닐 수 없으니 누가 물고 누가 대답할 진리가 거기 파묻

여기서는 후대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8대지옥 8한지옥 아귀 아수라 4중주(八中洲) 6욕천 등 36처를 말하는데 중생계는 인간계와 함께 있는 것으로 따로 나누지 않기도 한다. 옛사람들은 이러한 욕계에도 불구하고 그 욕계의 꼭대기인 하늘의 끝없는 세계인 색계 무색계 등의 우주조차도 그것을 커다란 물이나 바다로 인식함으로써 그 중생세계를 괴로움의 바다(苦海)라고 말해오기도 한다. 우선 욕계 가운데서도 지옥 아귀 축생을 3왕국과 해서 가장 철학한 약업의 소산으로 된 곳으로 말하는데 여기서 아수라를 더해서 4왕국이라고 말할 경우도 있다. 그런 다음 인간계와 천상계를 5취로 말하거나 6취로 말함으로써 이는 극악의 소산이 아니다. 그 위의 6욕천은 삼계 가운데서 욕계의 소속인 여섯가지 중생세계의 하늘이다.

보기만 해도 음행이 성립되어 그 쾌락이 헤아릴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이런 욕계에서 바로 색계로 올라가기에 앞서 욕계의 인간세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곳의 금륜 위 일곱바다 위의 동남서북에 떠 있는 인간계 가운데 하나인 남쪽 삼부주의 한 점이나 다를 바 없는 무독도에 남아있는 단 한 사람의 여자 우녀를 떠올리게 심상이기도 하다. 그는 그렇게 우주 속의 한 티끌로서의 미미가 된 동시에 법신 그 자체이기도 한 것이다. 구사론(俱舍論) 세간품은 수미산과 그 둘레를 에워싼 세계를 설명해주고 있다. 이런 곳에서 말하는 고대인도 범어의 세(로키)와 계(다하루)는 중국의 한어 주(田)와 우(宇)에 해당한다. 다만 우주는 반드시 인간 존재를 전제하지 않지만 세계는 인간을 불가분의 존

아니 빛날에 이르러서는 세계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도다(一切唯心造).

그 위에 금륜의 세계가 수운 물러 그대로 겹쳐 울러앉아 그 금륜 둘레를 철위산이라는 쇠산 울타리 안에 망망한 큰 바다가 펼쳐져 있게 되었다. 아무도 있지 않는데 있는듯이 어떤 느낌표로 가득한 바다였다. 그 커다란 바다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산들이 솟아 올라 뿔 뿔이 병풍이 되어 가는 것이다. 이리기를 아홉산 안에 여덟바다가 있는데 그러기전에 인간계의 욕지가 먼저 퍼 있었다. 그 9산8해 한복판의 높이는 16만유순이나 되는 수미산에서 다음 다음으로 산의 높이는 지장산 지축산 철육산 선전산 마이산 상이산 니만달라산... 그러니까 니만달라산과 외곽 철위산 사이의 바다에 인간계의 욕지가 있는 것이다.

## 세계는 업에 의해 유지 소멸되나 '일체유심조' 라고도 한다

격조높은 작품 · 감동적인 영상 - 불교TV 영상물 - 불교TV 영상물은 한 잔의 맑은 차처럼 山寺의 향음이 그윽합니다.

#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 1집

불교TV 영상물에는 역사의 깊이가 녹아 있습니다. 고승대덕의 범문이 살아 숨쉬습니다. 부처님의 숨결을 함께 느껴실 수 있습니다. 불교TV 영상물에는 한국문화의 정수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불자들을 위한 수행정진의 배움길잡이 역할은 다하도록 기획 · 제작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 · 어느 순간에 내놓아도 자랑스려운 기록영상물. 불교TV 특집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에서 스님의 숨결을 함께 느껴 보십시오.



-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 1집**
- 1 시용 르스님 (고봉종림 방장) 백양사 주지 계선스님이 은사스님의 지엄한 구도정신을 가르쳐 주는 정철의 초리
  - 2 시암 르스님 (진 조계종 중정) 불교학원교육원 운영장 설자가 르스님의 고고한 지체와 함께 성숙한 삶을 소망
  - 3 월야 르스님 (조계종 중정) 달린드 고구실 불자가 동도사를 배경으로 르스님께 성해 되는 어서대 백성의 발흥
  - 4 석주 르스님 (법보시 조실) 동화작가 정채봉 불자가 르스님의 구도정신을 탐색하는 감동의 현장
  - 5 월산 르스님 (법곡선원 조실) 영남대 김성규교수가 차안숙에 동화되어 생활이 온 선이 되어 비빈 르스님의 삶을 위해
  - 6 상수 르스님 (법수선원 조실) 승가대 승현우교수와의 대담으로 르스님의 독특한 수행과정, 전개되는 감동의 현장
  - 7 고승 르스님 (파계시 조실) 수행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달린드 영남대 불자에게 설교
  - 8 비룡 르스님 (월정시 조실) 관음보살상은 자비스런 깨달음의 발흥을 불교조형연구소 이기신 소장과 대담
  - 9 원담 르스님 (석승종림 방장) 편지가 불남세 불자가 속세의 발흥이 닿지 않는 르스님의 선승정신을 전함
  - 10 일타 르스님 (진 조계종 전계대외장) 현대인의 가슴에 촉촉한 봄비같은 청량감을 주는 발흥을 연희장에게 일기는 대외가 전함
- \* 뒤 차례는 발흥된 순서임
- 비디오 테일 · 10개 1세트 / 구매가 : 170,000 원**  
 구입문의 :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02)3272-0781~5/(02)706-3502~5

지혜의 빛 · 자비의 샘  
**불교TV 영상포교사업단**  
 (02)3272-0781~5/706-3502~5